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문제 1>

1866년 8월 20일 고종 3년에 ‘나’는 평안감사로 재직 중이었다. 외국에서 온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까지 도착하여 통상과 교역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통상과 교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통상을 강요하며 만경대까지 올라와 이를 말리던 관리를 붙잡아 배에 감금하여 평양성 관민들의 분노를 샀다. 강물이 빠지면서 외국 상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당황한 승조원들이 감금된 관리를 구하려 몰려든 관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런 상황들을 조정에게 알렸고 조정에서는 ‘외국 상선과 승조원들을 모두 불태워라’라는 왕명을 보내왔다. ‘나’는 실학사상을 공부하며 자주적인 개국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개화사상가다. 성리학을 내세우며 쇄국 정책만을 고집하고 탁상공론을 일삼는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언더리가 난다.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관직자로서 당연히 왕명을 따라야한다. 한편으로는 외국 상선을 불태워버린다면 외국과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앞선다. 또한 난동을 피우기는 하였어도 외국 상선에 타고 있는 24명의 사람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이치에 맞지 않다. 외국 승조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주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려서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외국 승조원들이 우리의 권고를 무시하고 백성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침략 행위로 볼 수 있어 왕명이 하달된 것이다. 왕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목숨 뿐 아니라 가족들의安危도 위협받는다. 날이 밝기 전 결정을 해야 한다.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보낼 것인가? 왕명을 따라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애버릴 것인가?

지원자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 오후

■ 추가 질문

1)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보낸다>를 선택한 경우

오늘날의 공직자 직업윤리의 개념을 왕명을 따르지 않는 ‘나’의 선택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왕명을 따라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앤다>를 선택한 경우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시만 따르는 것은 악(惡)이 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 오후

■ 출제 의도

- 개인의 신념과 조직의 체계 사이에서 갈등은 흔히 존재한다. 특히 인간을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 체계에 순응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으며 개인의 신념이 확고하여도 의학자, 의사로서 어느 정도 조직을 포함한 세상과 타협을 하며 적응해 가야 할 때가 많다. 이러한 딜레마를 가상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내어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조직의 위계질서에 대한 충성도, 현실 적응, 생명 존중 의식 등이 상충되는 가치들로 존재하며 내적 갈등이 발생할 때 지원자가 가상의 주인공의 심리에 대해 공감능력을 보이고 충돌하는 가치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지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의 결과보다는 결정을 하는 과정 중 보이는 진정성 있는 태도, 공감능력, 단계적으로 추론하며 주장할 수 있는 논리력, 상황판단능력, 희생과 생명 존중에의 의식 정도 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추가질문을 통해 지원자가 앞서 밝힌 논리적 추론에 반하는 근거를 제공하였을 때 객관적이고 유연하게 자신이 내린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을 보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 오후

■ 예시 모범답안

1)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보낸다>를 선택한 경우

‘나’는 이치에 맞는 논거를 중시하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자이고 무조건적인 쇄국정책보다는 자주적인 개국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치를 따져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죽이라는 왕명을 따를 경우 자신의 개화사상과 맞지 않고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실익을 따지지 않고 이론만 고수하는 이들의 감정적 선택을 따르게 되어 신념에 위배된다. 또한 24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생명 존중의 이치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생명존중, 신념과 사상, 나라가 위협해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외국 상선 승조원들이 되돌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2) <왕명을 따라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앤다>를 선택한 경우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직자로 왕명을 따를 의무가 있다. 자신의 사상에 위배되더라도 관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상선 승조원들은 우리 백성을 잡아 감금하고 총을 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백성을 지켜야 하는 관직자로서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사상과는 다를지언정 쇄국정책에 입각한 국법을 지키는 것이 관직자로서의 도리이며 왕명이 백성을 지키고 국법을 수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따라야 한다. 개인의 독자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끔찍한 일이나 침략으로도 볼 수 있는 외국 상선의 난동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외국의 배들도 통상을 강요하며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 또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왕명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 오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 추가 질문

- 1)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보낸다>를 선택한 경우
오늘날의 공직자 직업윤리의 개념을 왕명을 따르지 않는 '나'의 선택에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예시 모범답안

'나' 개인의 신념과 생명 존중 의식을 지키기 위해 왕명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선택한 지원자들은 추가질문을 받았을 때 평안감사로 법을 지키고 상부의 명을 따라야 하는 '나'의 위치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고 왕명이 너무 잘못되었다며 비난을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업윤리란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하며 예를 들면 직업인이 각자 맡은 일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도덕적으로 일해야 한다. 관직자로 위계질서에 따라 명령을 따르는 것도 직업윤리의 한 측면이지만 도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직업적 역할을 좀 더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도 숭고한 직업윤리로 볼 수 있다. 조직 내 명령체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념과 생명 존중 의식을 더 상위의 가치관으로 여겨 고민 끝에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맥락의 대답으로 공감과 생명 존중, 상황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 오후

■ 추가질문 및 예시 모범답안

■ 추가 질문

2) <왕명을 따라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앤다>를 선택한 경우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시만 따르는 것은 악(惡)이 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예시 모범답안

‘나’는 사상가, 실학자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감사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왕명을 따르는 것이 비록 신념에 맞지 않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외세의 침략에 준하여 결정할 위기해결책이므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따라야 한다. “비판적 사고 없이 무심코 행하는 평범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불태워 죽이라는 말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에스맨으로 따르면 안 되지만 ‘나’는 자신의 신념과 조직의 명령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백성들의安危, 당시의 국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내 신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죄책감, 심리적 고통은 ‘나’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실을 받아들여 고민 끝에 자기 선택으로 결단을 하고 업무 수행하는 것은 주체적 사고를 한 결과로 국법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 개인의 신념에 위배되는 조직의 명령을 따를지에 있어 지원자가 충분한 고민을 하고 타협점을 찾고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명령을 따르는 결과를 보일 때 결정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신념과 현실과의 타협 정도, 현실적응능력, 문제파악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채점기준

[탁월]

아래의 [우수]에 나온 내용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가질문>을 통해 지원자가 생각지 못한 다른 의견을 듣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대응이 훌륭하고 진심 어린 의지와 태도를 보이는 경우

<답변 태도>

- 가상의 스토리에서 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주인공의 심리에 공감하며 개인의 신념과 조직의 체계를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을 이해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른 선택에 대한 비난이나 융통성 없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지 않고 유연한 통합적인 사고를 피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 면접관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보완하거나 또는 면접관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다.

[우수]

아래 예시 답변에 제시된 내용이나 예시 답변에 없더라도 부합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설명한 경우

<예시 모범답안>

1)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을 설득하여 되돌려 보낸다>를 선택한 경우

‘나’는 이치에 맞는 논거를 중시하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학자이고 무조건적인 쇄국정책보다는 자주적인 개국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치를 따져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죽이라는 왕명을 따를 경우 자신의 개화사상과 맞지 않고 자칫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실익을 따지지 않고 이론만 고수하는 이들의 감정적 선택을 따르게 되어 신념에 위배된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또한 24명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생명 존중의 이치를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생명존중, 신념과 사상, 나라가 위협해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외국 상선 승조원들이 되돌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2) <왕명을 따라 배와 승조원들을 불태워 없앤다>를 선택한 경우

‘나’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직자로 왕명을 따를 의무가 있다. 자신의 사상에 위배되더라도 관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상선의 승조원들은 우리 백성을 잡아 감금하고 총을 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백성을 지켜야 하는 관직자로서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신의 사상과는 다를지언정 쇄국정책에 입각한 국법을 지키는 것이 관직자로서의 도리이며 왕명이 백성을 지키고 국법을 수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따라야 한다. 개인의 독자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끔찍한 일이나 침략으로도 볼 수 있는 외국 상선의 난동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외국의 배들도 통상을 강요하며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 또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왕명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양호]

위의 [우수]에 비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논거의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우

[보통]

논거의 내용이 단편적이거나 주관적 느낌이거나 편견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이 질문과 맞지 않는 경우

[미달]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문제 2>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인 ‘나’는 오전 외래 진료 중이며 오후에 K교수님 수술 팀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다. 외과에서 의뢰된 60세 B씨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B씨는 좌측 뺨 위쪽에 발생한 종양에 대해서 1주일 전 K교수님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며 당시 시행했던 조직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담당 전공의인 ‘나’를 찾은 것이다. 검사 결과는 ‘악성’이었고 ‘나’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B씨에게 설명하였다. B씨는 크게 낙담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병변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절제 수술로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B씨는 6개월 전에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는다. B씨는 3일전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외과에 입원했으며 오늘 오후에 퇴원 예정이다. B씨는 오늘 오후에 K교수님에게 피부암 제거 수술을 받고 내일 퇴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타과의 환자를 퇴원 당일 성형외과로 주치의를 변경하여 당일 수술을 받는 것은 병원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타과에서 퇴원 후 최소한 24시간이 경과한 후 성형외과로 다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않고 외과 퇴원 당일 성형외과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의료보험 규정상 병원은 성형외과 수술비용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나’는 B씨에게 병원의 원칙을 설명하고 오늘 외과에서 퇴원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성형외과로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B씨는 집도 멀어서 너무 불편하니 오늘 오후에 꼭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K교수님께 문의 하니 교수님은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B씨와 병원의 원칙이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주라는 교수님의 지시가 난감하였다.

‘나’는 병원 운영 원칙을 근거로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것인지, 병원 운영 원칙을 거스르더라도 환자의 요구대로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원자가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가능한 추가질문 예시

1)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퇴원 후 월요일 수술)

- 환자의 요구가 부당한가?
- 대장암으로 치료 중인 환자가 피부암 진단을 추가로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 스승인 교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로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하는가?
- B씨 수술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되는 이유를 교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가?
-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의료행위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기 때문인가?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2) 병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요일 당일 수술)

- 병원의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환자의 불편이 심한가?
-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 의사가 환자의 편의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괜찮은가?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출제 의도

- 본 문항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원자의 공감능력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변별력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전공적합성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 상사와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과 이타정신과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키워드는 1번 문제와 유사하나, 2번 문제에서는 갈등의 현장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동하여 지원자의 의사로서의 자세와 공감능력, 이타정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변별할 수 있도록 문항을 고안하였습니다.

- 생명존중의 관점에서는 1번 문제에서의 상사의 의견과 2번 문제에서의 상사의 의견을 반대되게 배치함으로써 생명존중 관점에서 벗어나서 상사와 지원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지원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항을 고안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예시 모범답안

1) <병원의 원칙을 어기고 금요일에 수술을 준비 한다>를 선택한 경우

-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피부암까지 진단 받았다면 B씨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위로해야할 의무가 있다.
-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
- ‘나’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수술 팀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 병원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지만 의사결정의 상급자인 교수님이 지시하신 것이니 내가 독단적으로 행동 할 수는 없다.

2)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준비 한다>를 선택한 경우

- B씨의 고통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나 의사도 병원에 소속된 일원이므로 병원의 원칙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하다.
- 원칙 없이 수술을 진행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술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교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시를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다.
-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환자마다 다른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내린 결정이다.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채점기준

- 1) <병원의 원칙을 어기고 금요일에 수술을 준비 한다>를 선택한 경우
- 추가 질문 등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 중에서 선택하여 채점한다.

[탁월]

- 의사로서 충분한 공감 능력과 이타정신, 의사결정 과정의 융통성이 확인됨.
- 의사는 타 직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이타정신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여 의사로서의 자세를 갖추.
- 1번 문제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과 2번 문제의 의료현장에서 의사로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우수]

- 의사로서의 적절한 공감능력이 확인 됨.
- 의사로서의 사명감(이타정신)이 확인 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동정신과 융통성이 확인 됨.

[양호]

-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동정신이 확인 됨.
- 의사로서의 공감능력이 확인 됨.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보통]

-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K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본인의 논리가 없음.
- 최소한의 공감능력만 확인 됨.
-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음.

[미흡]

- 의사결정을 잘 못 내리고 우왕좌왕함.
- 공감능력에 문제가 발견됨.

[미달]

-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함.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 채점기준

2)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준비 한다>를 선택한 경우

- 추가 질문 등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 중에서 선택하여 채점한다.

[탁월]

- 의사로서 B씨의 불안을 이해하고 충분한 공감능력을 표현함.
-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좀 더 안정적인 수술 환경 조성 등의 의학적 이유로 원칙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함.
- 1번 문제의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과 2번 문제에서 의료현장에서 의사로서 '나'의 의사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인지하고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우수]

- B씨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답하였고 환자분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보여서 적절한 공감능력이 확인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철한 준법정신이 확인됨.
- 추가 질문에서 교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솔직함과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이 관찰됨.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문제지

의학계열[의예, 한의예(인문/자연), 치의예] - 12월 05일(일) 오후

[양호]

- B씨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였으나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적절한 공감능력이 확인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철한 준법정신이 확인됨.
- 추가 질문에서 교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직함과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이 관찰됨.

[보통]

- 환자의 요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추가 질문에서 최소한의 공감능력만을 보임.
- B씨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함.
- 추가 질문에서 교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미흡]

- 환자의 요구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감능력에 문제가 발견됨.
- 추가 질문에서 교수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소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미달]

- 공감능력에 문제가 발견됨.
-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선적인 사고방식이 관찰됨.